

#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발족식 및 기자회견

## KOREA CAMPAIGN TO BAN LANDMINES(KCBL)

1997년 11월 6일(목) 오전 10시-11시 30분, 기독교회관 2층

### <식순>

사회 : 이대훈

인사말씀

발족 취지 및 경과보고

사업계획 설명

지뢰피해자 증언 : 피해자 2인

공동대표 및 실무진 소개

발족선언문 낭독

연대메시지 낭독

- 노벨평화상 수상자 조디 윌리엄스

- 국제적십자사, 국제지뢰금지운동(ICBL), 유니세프,  
아시아교회협의회, 아시아세계교회협의회

대인지뢰의 실상,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 현황 설명 : 김창수

### 1. 경과보고

- 대인지뢰 생산 및 사용을 즉각, 그리고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대인지뢰금지협약]초안이 97년 9월 17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전세계 89개 참가국의 합의로 통과됨으로써 지난해 10월 캐나다정부와 국제지뢰금지운동본부(ICBL)의 주도로 시작된 대인지뢰금지노력, 즉 [오타와 프로세스]가 결실을 맺게 되었음. 오는 12월 1-3일 오타와에서 협약을 정식으로 서명하고, 40개국이 비준하면 6개월 이후에 발효됨.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약점.

- 지난 9월 오슬로회의에서 한반도비무장지대를 예외로 하자는 미국 정부의 주장이 최대 쟁점이 됨. 이에 대해 90개국의 나라들과 민간단체들은 예외불인정을 주장하여 미국은 이 회의에서 탈퇴함. 같은 입장을 개진한 한국정부는 참관자격으로 참석함.

- 9월 29일 97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의 하나로 [아태장애인 10년 중간평가]를

위해 열린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에서 [대인지뢰 사용금지 캠페인]을 다시 전개하기로 함. 또한 ICBL과 그 대표 죠디 윌리엄스가 9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여 대인지뢰의 반인륜성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이 크게 환기됨.

- 9월 15일, 참여연대, 전국연합, 민교협, 학단협 등 4개 단체가 연명으로, 그리고 전국연합, 참여연대, 민교협, 통일맞이가 각각 대인지뢰금지협약지지 및 한반도에 외불인정 성명을 발표하고 오슬로 민간단체 공동사무처에 전달함.

- 10월 7일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8개 시민·사회단체 담당자들이 모여서 한반도에서 대인지뢰금지조치가 갖는 군사전략상의 여파를 인식하면서도, 계속되는 무고한 피해를 막고, 남북한이 공히 대인지뢰의 무차별성, 비윤적 부조화성 등 반인도주의적 성격을 인정하고 협약제정에 동참함으로써 인도주의와 평화를 향한 인류의 노력에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음. 이에 (가칭)한국대인지뢰 대책회의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 모임을 갖고로 합의함.

- 이어서 10월 16일, 10월 24일 2차, 3차 실무회의를 갖고, 10월 29일에는 대표자·실무자 연석회의를 가져 사업계획과 기타 준비를 함. 통일맞이와 기사연에서는 자료집 준비를, 또한 기사연에서 국제연대를, 참여연대는 연락 및 조정을, 교회여성연합회에서는 실태조사와 피해자섭의를 맡기로 함.

- 노벨평화상 결정과 국내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10월 23일 한겨레21 등에서 지뢰금지운동과 한반도지뢰현실에 관한 종합적인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함.

- 실무회의에서 준비한 자료와 논의사항을 기초로 [대인지뢰금지, 현실과 과제]라는 자료집을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자비로 발간하여 대책회의 가입단체들이 홍보, 배포하기로 함.

- 11월 6일 오전 9시 참가단체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회 명칭과 사업계획, 임원 및 발족선언문을 채택함.

## 2. 사업계획

- \*\* 사업방향** 대인지뢰의 반인도주의성 사회 의제화  
한국정부의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촉구  
효과적인 남북한 대인지뢰금지를 위한 여론화, 대안 제시  
지뢰피해자 구제 사회운동 전개  
지뢰피해자 지원 국제연대운동 동참

### (1) 대책회의 운영

- 대표자회의 : 공동대표단이 필요에 따라 소집
- 집행체계 :
  - o 총무, 정책홍보담당, 국제연대담당, 실태조사담당을 실무팀으로 구성,
  - o 실무팀이 실무회의를 소집하고 공동대표단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집행
- 재정 : 기본 분담금을 \_\_\_ 만원으로 하고, 그 외 재정은 대중적 모금과 프로젝트 지원을 모색하기로 한다.
- 기타 : 그외 단체 활동의 자율성을 적극 권장한다.

### (2) 홍보사업

- 자료집을 재발간, 확대배포
- 언론과 매체를 통한 보도 및 기고활동
- 시민홍보활동 및 주간대인지뢰학교 운영(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시민행동 : 97년 11월말, 98년 2월
- 인권주간 특별 순회 강연 추진
- 오타와회의에 맞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발표 추진

- *3월 18일*

### (3)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

- 피해자실태 조사, 자료수집 및 면담
- 법률지원상담 및 소송지원
- 피해자 유형 분석 및 대책수립
- 지뢰피해자모임 구성

### (4) 국내외 연대

-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가입단체 확대
- 국제지뢰금지운동, 국제적십자위원회, 유니세프와 연대
- 한국적십자사, 유니세프 한국지부와 협력관계 추진
- 오타와 회의에 민간대표단 파견, 한반도 특별결의안 추진

- 죠디 윌리엄스 및 대인지뢰금지캠페인 군사전문가 초청 및 한국캠페인 전개(98년 2월)
- 한반도지리실태 국제조사단 구성 및 방한조사 추진
- 한반도예외반대를 위한 아시아캠페인 추진

### (5) 정책 수립

- ICBL의 여러 전문가와 정책 협의
-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국회결의안 추진
- 한반도대인지뢰금지운동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11월 19일(수) 오후 6시, 장소 미정
- 시민사회지도자 의견서 대정부 제안
- 대인지뢰국제협약 가입 대정부 촉구

### 3. 참가단체

경실련 통일협회, 환경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전주정의평화정보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통일맞이늦봄문의환기념사업,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인권운동사랑방, 한국유권자운동연합 21세기정치발전연구소,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15개단체)

### 4. 임원 및 실무진

고문 : 강문규, 박용길

공동대표단 : 문정현신부, 조미리목사, 이장희교수

실무팀 : 정책홍보담당 - 김창수

총무 - 이대훈

국제연대담당 - 조재국 목사

실태조사담당 - 김혜숙 목사, 김혜정

##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발족 선언문

현재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대인지뢰금지운동은 모범적인 평화군축운동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군축협상들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인지뢰금지운동은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많은 나라의 정부들을 참여시킨 운동입니다. ICBL에 가입한 1000여개의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국제적십자위원회,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를 참여시켜서 대인지뢰금지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에는 오슬로회의에서 89개국 정부가 참가한 대인지뢰금지협약 초안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인지뢰금지운동을 지켜보면서 세계의 많은 민간단체들이 힘을 모으다 보면 강대국 중심의 냉혹한 세계질서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인권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인지뢰금지운동에 나선 세계의 평화애호세력들에게 굳건한 연대의 뜻을 표시합니다.

대인지뢰금지협약에 대하여 미국은 자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이유로 한반도만을 예외지역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일부 다른 국가들도 안보상의 이유로 예외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현실을 홍보하면서 지뢰의 예외적 사용을 위한 협약조항 삽입을 주장했고, 북한군의 남침을 지연시키기 위해 지뢰의 사용이 필요하며, 한반도에서는 비무장지대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어서 민간인의 피해는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뢰로 인한 민간인 피해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사전문가들은 지뢰를 통한 남침지연전략이 오히려 나중에 미군과 한국군, 한국민간인들을 대규모로 희생시킬 수 있는 재앙을 만드는 전략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오는 12월에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한다고 해서 한국만이 일방적으로 또는 즉각적으로 대인지뢰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취지는 현재 남북대치의 현실을 무시하고 군사적 불균형을 초래하자는데 있지 않습니다. 지난 9월 오슬로에서 체결된 대인지뢰금지협약 초안에 따르면 대인지뢰 금지협약에 가입하면 대인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인지뢰를 완전히 제거하기까지는 10년의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더라도 즉각 단독으로 대인지뢰를 제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한반도에서의 포괄적 지뢰금지문제에 적극적인 위치를 찾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에 북한과 군축협상을 시작해서 북한을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도록 이끌고, 나아가 남북이 공동으로 대인지뢰를 제거한다면, 오히려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이 남북 대치의 현실 속에서 남한만이 일방적으로 무장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주장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10년의 기간 동안 대인지뢰를 제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10년후에 대인지뢰가 아닌 대체무기를 설치하는데 충분하다는 점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은 결코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세계만방에 과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한국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만을 심어 주어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인지뢰반대운동은 첫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운동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이를 위한 남북한의 군축협상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남북한 정부가 하루빨리 군축협상을 시작하도록 촉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남북한이 비무장지대에 '평화생태 보존구역'을 공동조성하면 생물다양성 보호뿐만 아니라 남북사이의 신뢰구축과 화해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비인도적인 무기에 반대하는 인도주의에 기초한 폭넓은 연대를 실현하는 운동입니다. 분단의 한반도적인 상황에서 분단의 극복과 통일국가건설에 평화와 인도주의를 이념으로 한 대인지뢰운동은 크나큰 의미가 있습니다.

넷째, 대인지뢰금지운동은 유일초강대국 미국의 전횡을 막고 평화와 호혜평등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소련의 해체이후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임을 과시하며 자국의 이익추구만을 위해 때로는 국제법을 무시하기까지 하는 전횡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인지뢰금지협약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9개국의 지지를 얻어 만들어졌고, 이 협약으로 국제지뢰반대운동과 조디 윌리엄스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대인지뢰반대운동에 참여하면서 우리들은 더 이상 한반도가 동서이념의 대립장이며 새로운 질서에 대한 강대국들의 연습장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더욱이 한반도만을 예외지역으로 하려는 미국과 한국정부의 입장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오슬로회의에서 통과된 대인지뢰금지협약 초안통과를 환영합니다. 아울러 오는 12월초에 캐나다 오타와에서 대인지뢰금지협약을 최종서명하는 과정에서 세계의 평화세력들이 한반도의 대인지뢰문제를 남북한이 슬기롭게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표명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남북한 정부는 평화로운 지구촌을 건설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한국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대인지뢰를 제거해서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한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남북군축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반도 군사문제의 중대한 당사자인 미국정부도 대인지뢰제거를 위한 남북한의 협상을 지지하고, 협상의 결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일하는 여성,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이번 대인지뢰금지운동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평화운동의 물결에 함께 동참하여 중무장된 죽음의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바꾸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1997년 11월 6일

##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

경실련 통일협회, 환경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전주정의평화정보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통일맞이칠천만겨레모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인권운동사랑방  
한국유권자운동연합 21세기정치발전연구소,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15개 단체)

## <연대 메시지>

### 1. 노벨평화상 수상자 조디 윌리엄스(Jody Williams)

대인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우리 공동의 노력에 함께 하는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의 발족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대인지뢰의 사용, 생산, 비축, 이동의 금지와 지뢰피해자구제와 지뢰제거를 위한 비용증대를 위하여 이처럼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함께 모임을 구성한 것은 실로 감동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올해 12월 3일과 4일 사이에 캐나다 오타와에서 100개국 이상이 대인지뢰 금지협약에 서명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하여 몇몇 나라들이 아직 이 루키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포함하여 이들 나라들이 대인지뢰를 포기하고 협약에 서명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의 발족을 따뜻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97년 10월 31일

### 2. 유니세프 집행위원장 카롤 베라미(Carol Berra)

저는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가 하구이(하구이)를 움직일 민간, 종교, 여성단체들로 구성되어 대인지뢰금지라는 가치있는 목적으로 결성된다는 점을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비무장지대에 약 1백만개의 지뢰가 남아있고, 이는 매년 수천명의 민간인이 죽고 수백만명이 장애를 입는 원인이 됩니다. 한국은 특히 이 문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과 같은 단체들이 "오타와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높이고 정부들이 "대인지뢰 사용·비축·생산·이동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도록 격려하는 일은 매우 핵심적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니세프는 1992년 이래로 모든 대인지뢰의 생산, 비축, 사용, 이동의 전면적 금지운동을 강력히 전개해왔습니다. 우리는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ICBL)의 훌륭한 활동을 항상 지지해왔으며 이 단체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성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97년 10월 23일

(아시아교회협의회 : 생략)

### 3. 국제적십자위원회 회장 코르넬리오 소마루가(Cornelio Sommaruga)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의 발족을 축하드리면서 이 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에 새로운 참가자로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국제사회는 최근 대인지뢰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협약을 완성했습니다. 이 노력의 배경이 된 에너지와 추진력은 대부분 각 나라의 사회단체와 기구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국제지뢰금지운동과 죠디 윌리엄스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성공을 인정한 것입니다.

지뢰금지협약의 성립은 단지 이 끔찍한 무기에 중지부를 찍는 첫 발자국에 불과합니다. 이 협약은 이제 서명되고 비준된 이후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지뢰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지뢰를 완전히 제거하는 장기적인 노력에 커다란 관심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협약의 성립까지 축적되었던 전세계적인 노력, 성실성, 협력이 이제 앞으로도 똑같이 지뢰제거와 피해자구제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각국 정부가 이 협약에 서명하고 준수하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의 앞으로의 기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노력에 성공을 기원합니다. 97년 10월 28일

### 4. 세계교회협의회 대인지뢰담당 드웨인 엡스 목사(Rev. Dwein Epps)

세계교회협의회를 대표해서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의 발족을 축하드립니다. 세계교회협의회와 전세계의 많은 회원 교회들은 대인지뢰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운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회원 교회들과 유관 단체들은 지금까지 대인지뢰 생산에 반대한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회는 지난 오슬로 회의에 예외나 유예조항이 없는 진정한 지뢰금지협약 성립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교회는 갈등지역에서 취약계층의 사람들, 특히 여성농민과 아이들이 지뢰로 인해서 겪고 있는 끔찍한 고통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무차별적인 무기는 초강국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대리전쟁을 하던 구시대에 속하는 무기입니다.

우리는 일부 국가들이 '국가안보'을 이유로 포괄적 금지조치에 대한 반대 근거로 제시되는 나라인 한국에서 여러분과 같은 민간단체와 교회단체가 모여서 금지운동에 동참하는 것에 찬사와 격려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지뢰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한국에서의 이같은 노력은 국제지뢰금지운동에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97년 10월 27일.